

---

---

# 2021年度第1回研究大会 予稿集

---

---

日時：2021年8月21日（土）

《第1部》10-12時

《第2部》13-18時

場所：オンライン（ZOOM）

主催：日本韓国研究会（JAK）

お問い合わせ：大会事務局 [jak.jimu@gmail.com](mailto:jak.jimu@gmail.com)



---

# 目次

---

## ■ プログラム

- ・ ポスター
- ・ スケジュール
- ・ 当日参加用 URL (ZOOM)

## ■ 研究発表

- ・ 具美暎 (早稲田大学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科博士課程)  
「2010년 이후 한국과 일본 영화 속의 디스토피아 풍경」
- ・ 大槻和也 (同志社大学大学院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研究科博士課程)  
「指紋押捺拒否運動への梶村秀樹による活動について」
- ・ 趙智英 (同志社大学)  
「呪宝譚の諸相—ファスブンと塩吹臼を手掛かりに—」
- ・ 崔銀景 (長崎外国語大学)  
「教師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に対する学習者の反応について」
- ・ 金美順 (関西大学大学院外国語教育学研究科博士課程)  
「조선시대에 쓰여진 『노걸대』 언해류의 통시적 고찰  
— 『노걸대』 언해류의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 プログラム

---

---



# 日本韓国研究会

Japan Association of Koreanology

## 第1回研究大会

日時：2021年8月21日(土)

第1部：10-12時、第2部：13-18時

場所：オンライン ZOOM

### 第1部 10時 ワークショップ①

研究者としてのキャリア形成Q&A

- ・司会：河正一（大阪府立大学）
- ・登壇者：大槻和也（同志社大学大学院博士後期課程）  
権恩熙（名古屋大学大学院人文学研究科博士研究員）  
成鎮宇（京大法学政策共同研究センター特定研究員）  
趙智英（同志社大学）  
任炫樹（帝塚山学院大学）

### ワークショップ②

私はこちら書いた！研究計画書

- ・司会：飯倉江里衣（神戸女子大学）
- ・報告①【言語】 黒島規史（熊本学園大学講師）  
日本学術振興会特別研究員(DC2)：2016-17年度
- ・報告②【文学】 岡崎享子（立命館大学博士課程）  
日本学術振興会特別研究員(DC2)：2020-21年度
- ・報告③【歴史】 朴敬玉（一橋大学経済学研究科特任講師）  
日本学術振興会外国人特別研究員PD：2016-17年度

### 第2部 13時

研究発表（発表35分・質疑応答15分）

- 13:00 具美暎（早稲田大学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科博士課程）  
「2010년 이후 한국과 일본 영화 속의 디스토피아 풍경」
- 14:00 大槻和也（同志社大学大学院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研究科博士後期課程）  
「指紋押捺拒否運動への梶村秀樹による活動について」
- 15:00 趙智英（同志社大学）  
「呪宝譚の諸相—ファスブンと塩吹白を手掛かりに—」
- 16:00 崔銀景（長崎外国語大学）  
「教師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に対する学習者の反応について」
- 17:00 金美順（関西大学大学院）  
「조선시대에 쓰여진 『노걸대』 언해류의 통시적 고찰— 『노걸대』 언해류의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日本韓国研究会  
Japan Association of Koreanology

日時：2021年8月21日(土) 10時-18時

オンライン ZOOM 開催、主催：日本韓国研究会(JAK)

参加費：無料、お問い合わせ：大会事務局 [jak.jimu@gmail.com](mailto:jak.jimu@gmail.com)

# スケジュール

## 第1部

時間	ワークショップ1【研究者としてのキャリア形成 Q&A】
10:00-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司会：河正一（大阪府立大学）</li> <li>・登壇者：大槻和也（同志社大学大学院博士後期課程） 権恩熙（名古屋大学大学院人文学研究科博士研究員） 成鎮宇（京都大学法政策共同研究センター特定研究員） 趙智英（同志社大学） 任炫樹（帝塚山学院大学）</li> </ul>
	ワークショップ2【私はこう書いた！研究計画書】
12:00-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司会：飯倉江里衣（神戸女子大学）</li> <li>・報告①【言語】黒島規史（熊本学園大学講師） 日本学術振興会特別研究員(DC2)：2016-2017年度</li> <li>・報告②【文学】岡崎享子（立命館大学博士課程） 日本学術振興会特別研究員(DC2)：2020年-2021年度</li> <li>・報告③【歴史】朴敬玉（一橋大学経済学研究科特任講師） 日本学術振興会外国人特別研究員 PD：2016-2017年度</li> </ul>
	昼食休憩

## 第2部

研究発表				
時間	発表者	発表タイトル	司会	頁
13:00- 13:50	具美暎 (早稲田大学・ 博士課程)	2010년 이후 한국과 일본 영화 속의 디스토피아 풍경	朴庚卿 (明治学院大学 ほか)	9
14:00- 14:50	大槻和也 (同志社大学・ 博士課程)	指紋押捺拒否運動への 梶村秀樹による活動について	飯倉江里衣 (神戸女子大学)	25
15:00- 15:50	趙智英 (同志社大学)	呪宝譚の諸相 —ファスブンと塩吹白を手掛かりに—	高橋梓 (一橋大学大学院言 語社会研究科研究員)	36
16:00- 16:50	崔銀景 (長崎外国語大学)	教師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に対する 学習者の反応について	任炫樹 (帝塚山学院大学)	43
17:00- 17:50	金美順 (関西大学・ 博士課程)	조선시대에 쓰여진 『노걸대』 언해류의 통시적 고찰— 『노걸대』 언해류의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仲島淳子 (近畿大学ほか)	50
18:00-	交流会			

## 当日参加用 URL (ZOOM)

当日は以下の Zoom URL からご参加ください。

※録画・録音は固くお断りいたします。

■トピック: 日本韓国研究会\_第一回研究大会

■時間: 2021年8月21日 10:00 AM 大阪、札幌、東京

■Zoom ミーティングに参加する

<https://us02web.zoom.us/j/83917298650?pwd=YU5wTU5xS1hQZ0M4WVpuc3N3V1huQT09>

※URL をクリックして Zoom ミーティングに参加してください

ミーティング ID: 839 1729 8650

パスコード: 235622

当日、研究大会終了後に Zoom で懇親会を行います。

お時間のある方はそのまま Zoom にお残りください。



# 研究発表

---

---



# 2010년 이후 한국과 일본 영화의 디스토피아 풍경

구미영 (와세다대학교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대학원박사과정)

##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사회의 디스토피아적 징후를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통해 살펴본다. 특히 이 연구는 일본 작품을 각색한 한, 일 영화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두 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본 연구는 2010 년대를 바탕으로 디스토피아 풍경을 추적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트라우마에 따른 두 사회의 변화,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워드** 한국과 일본 사회, 2010 년대, 디스토피아 영화, 일본 소설, Anime, Manga 의 각색

## 1. 들어가며

디스토피아를 재현하는 영화들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써 기능하지 않는다. 이 영화적 상상력은 우리의 현실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전 지구적 민족주의의 트렌드는 영화 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적 재현으로 가속화하는데 가담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의 가속화된 발전은 디스토피아 영화에서의 상상력을 떠올리며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상당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 공포를 초래했다. 이러한 불안은 2010 년대 한국과 일본이 겪은 불가피한 집단적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20 세기 전쟁의 집단적 기억과 그들이 동원한 물리적인 힘과는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화학자 Kim Se-young(2016: v)은 한국과 일본 영화의 신자유주의적 위기와 폭력에 대한 논의에서 "1986 년부터 1991 년까지 일본은 자산가격 버블을 겪었지만 1991 년 붕괴로 일본의 경제 기적이 끝난 '잃어버린 10 년'으로 알려진 기간이 발생했다. 비슷한 궤적이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인구 고령화, 재난 대응, 히키코모리, 프리터 등 현재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어려움들은 대부분 일정 시간을 거쳐 한국사회에서 유사하게

발생한다. 이는 사회구조, 교육제도, 문화환경등 양국이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 두 나라는 필연적으로 상호 영향을 수반하는 복잡한 관계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양국의 영화는 사회가 겪은 트라우마와 인류 전체의 의미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는 디스토피아 유형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10 년대는 양국의 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연구는 ‘디스토피아 풍경’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이러한 디스토피아 풍경에 대한 명확한 추적을 제공하는 네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특히 이 연구는 이 디스토피아 유형들이 일본의 창작물 (소설, 만가 그리고 애니메) 원작을 각색한 영화 작품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오래 전 일본에서 만들어진 서사들은 2010 년대 일본 영화 제작에 활용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같은 시대의 한국 영화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논문은 총 5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엄선된 영화를 통해 디스토피아 풍경을 스케치한다. 1 장과 2 장은 일본 사회와 일본 영화 히미즈 (소노시온, 2011) 와 기생수 (아마자키 타카시, 2014, 2015)를 탐구하고, 3 장과 4 장에서는 한국 사회와 한국 영화 인랑 (김지운, 2018)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김용훈, 2020)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5 장의 결론은 서론에서 언급한 관점을 재확인하고 결론짓고 본 논문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 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디스토피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한국과 일본의 영화, 신자유주의, 민족주의와 일본과 한국사회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수많은 영화이론이 논의에 활용된다. John Stuart Mill 과 Jeremy Bentham 은 디스토피아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George Orwell, Aldous Huxley, Fritz Lang, Stephen King 의 디스토피아 서술은 다양한 형태의 영화와 문학에 기여했다.

디스토피아는 종종 유토피아에 대한 풍자적인 환영으로, 절망을 유발하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용어 이해는 디스토피아가 모든 장르의 영화에 등장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셀 수 없이 많은 연구가 디스토피아 영화담론에 등장한다. 예를 들어, David Christopher (2015)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내재적 사회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억압적 관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Ann Kaplan (2015, p13)은 디스토피아를 "삶의 조건과 질이 불쾌한 상상의 장소, 유토피아의 반댓말"이라고 정의했다. 카플란은 디스토피아 상상력이 유토피아 담론의 사용을

통해 확장되어 이러한 "영화는 두려움과 희망의 두 가지 과정과 함께 문화와 담론에서 작동하는 외상을 반영한다"라고 덧붙였다(ibid, 8).

또한 Sean Bryton(2011)은 역사적 차이와 상관없이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착취를 경고하는 고전적인 디스토피아 내러티브가 가까운 장래에 너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디스토피아 내러티브가 종종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며, 국가의 디스토피아 내러티브는 공상과학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그러한 내러티브에서 백인 우월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시스템의 표현에 관한 벨 훅(bell hooks)에 동의했다.

Fredric Jameson, Donna Haraway, Vivian Sobchack, Anne Balsamo, Slavoj Žižek 및 Sean Cubitt 는 디스토피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F 영화, 포스트휴먼 개념 및 기술의 이해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일본 SF 영화는 "현대 일본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 영화(Napier, 1993, 328)와 마찬가지로 여러 연구자(Matthew, 1989; Hull and Siegel, 1989; Orbaugh, 2014)에 의해 논의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일본 영화의 상징과 의미, 3/11 이후의 미적 재현과 애도, 윤리, 젠더,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의 미디어의 형태에 대한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Furukawa and Deniso, 2015; Weickgenannt, 2016; Yoshimoto and Kaffen 2017; Wada-Marciano and Kubo, 2019)

한편 몇몇의 한국 영화 학자들은 영화 괴물 (봉준호, 2006) 과 D-War (심형래, 2007)를 중심으로 한국 공상 과학 영화의 성공적인 디스토피아 내러티브를 조사하여 신자유주의의 질서와 좀비 열풍 사이의 관계를 찾아냈다 (Chung, 2009, Kim, 2019). 다만 한국영화의 공상과학, 판타지, 디스토피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봉준호 감독 (Eom, 2014; Song, 2014; Lee, 2018; Lee and Steven, 2018)의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뛰어난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이 한국 사회를 사실성 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대부분의 영화 학자들이 봉준호 감독의 작품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SF 는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지엽적이다. 서양과 일본 SF 의 의미 있는 번역본이 몇 년 동안 등장한 반면, 모든 미디어에 걸쳐 오리지널 SF 의 한국의 생산량은 미미하다."(2011 년, 2-4) 라고 주장한 Gord Sella 의 논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많은 학술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이론 및 역사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Hayek, 1997; Harvey, 2005; Fisher, 2010; Brown, 2015).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 현상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복잡성으로 걸어다닌다"는 신자유주의는 영화와 미디어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게 한다 (Saad-Filho and Deborah, 2005, p 1).

Henry Giroux 는 "신자유주의는 잔인함, 불안정함, 그리고 처분 가능성의 넓은 풍경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zierska 는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에도 불구하고 영화와의 연관성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Ian Fraser, 2018, 1) 고 주장한다. Anna Cooper (2019)는 영화와 미디어 분야의 신자유주의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문제 이상입니다. [...] [...] 신자유론은 매우 필요한 뉘앙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미학과 신자유주의 정치와의 교차점을 찾아내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영화 연구의 신자유주의는 경제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디스토피아 영화들을 민족주의 영화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영화에서의 국가 대표성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주의 영화에 대한 논의도 검토될 것이다. (Smith, 1991, 2010, Bhabha, 1990, Gellner, 1997, Spivak, 1999, Cheah, 2003, Calhoun, 2007, Butler, 2007, 2012, 2014, Renan, 2018).

### 3. 연구의 장과 개요

#### Introduction

이 연구는 이 장 (Introduction)을 통해서 각색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왜 이러한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명확히 제공한다. 또한 일본 사회의 이야기가 왜 현재 한국 사회와 잘 공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국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3-1. 일본영화 *히미즈* (ヒミズ): 일본 디스토피아의 매핑 (Japanese Dystopian Mapping)

첫번째 챕터에서 이 논문은 소노시온의 영화 히미즈에서 디스토피아의 존재를 밝힌다. 이 장에서는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담화를 강조하여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를 묘사하기 위해 재해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설명하고 영화 히미즈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장소에 특히 주목하고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재난(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다이이치 원전 사고)이 일본 사회의 디스토피아 풍경을 보여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참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곳은 2010년대 일본 사회의 위기, 불안,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현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일본 사회의 위기와 공포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양가적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영화 히미즈에서 보여지는 장소와 인물들이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Heterotopia)이론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이론을 영화 히미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 3-2. 영화 기생수(寄生獸) Part 1, 2: 일본 SF 디스토피아

두번째 챕터에서는 일본의 디스토피아 풍경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다. 소노시온의 영화 히미즈를 통해 그려지는 디스토피아 풍경이 SF 영화 야마자키 타카시의 2014, 2015 년 영화 기생수로 옮겨진다. 본 챕터에서는 미래의 혼란스러운 디스토피아의 상상력을 면밀히 분석한다. 영화는 인간의 몸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인간과 유기체의 치열한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한계와 비인간 종과의 공존에 대한 심오한 의문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고품질의 컴퓨터 그래픽 효과와 SF 상상력을 결합하여 인간이 아닌 생물에 대한 혐오감을 자극하는 동시에 영화는 상상할 수 있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운 시선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1990 년대 초 만화로 연재된 이 작품은 2014 과 2015 년에 영화로 각색되면서 2011 년 일본이 겪은 재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1990 년대를 반영하는 원작 만화와는 달리 악당이자 최강 기생생물인 고토(아사노 타다노부)는 주인공 신이치(소메타니 쇼타)와 치열한 전투 끝에 소각로에서 방사성 철봉에 찢려 사망한다. 영화의 서술에서 제시된 방사성 물질은 일본 정부의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 처리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영화가 이해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물론 이 영화가 일본 정부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를 제대로 반성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3-3. 영화 인랑: 2010 년대 한국 사회의 디스토피아 풍경과 격동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현실과 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일본영화의 인간에 대한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들이 한국 사회로 전달된다. 즉, 인간의 고통과 갈등의 대상이 한국 사회의 혼란으로 전환되어 세번째 챕터로 이어진다. 여기서 일본에서 제작된 오키우라 히로유키 감독의 1999 년 작품 *인랑: 늑대 여단* (人狼)은 일본과 한국을 이어주는 훌륭한 메신저로서 한국영화 *인랑* (김지운, 2018)으로 거듭나 디스토피아 재현에 대한 임무를 완수한다. 정부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연민이 넘치는 인간으로서 집단과 개인의 내적 갈등에 휩싸인 한 인간 (강동원)을 추적하는 영화 *인랑* (2018)에서 한국 디스토피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논문은 2010 년대 한국 사회를 예상치 못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시기로 정의한다. 영화는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한 좌익과 보수정권의 기존 정치적 갈등을 배경으로 정하고, 2029 년의 한국을 디스토피아로 설정하여 지난

우파 보수정권<sup>1</sup>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이 영화가 근본적으로 한국식 좌파 민족주의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논문은 영화가 묘사하는 민족주의 관점으로부터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동시에 논문은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가 능숙하게 민족주의적 견해를 드러낸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한국 영화 반도(연상호, 2020)를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K-민족주의 영화의 담론도 언급하면서, 수십년 전 군사정권의 대항으로 절대선으로 여겨졌던 현재의 한국 정부가 보여준 좌파 민족주의적 성향이 한국 사회가 그토록 갈망해 온 유토피아인지에 대해 묻는다.

### 3-4.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藁にもすがる獣たち): 자본주의를 통해서 본 한국적 디스토피아

네번째 장에서는 서민들과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현재 한국의 디스토피아 풍경을 발견한다. 소네 케이스케의 일본 소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2011)은 등장인물, 대사, 주제 등이 균열없이 2020년 동명의 한국 영화로 거의 완벽하게 재현된다. 즉, 일본에서 만들어진 서사는 다시 한번 한국영화를 통해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데 몰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화는 돈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을 재현함으로써 한국의 자본주의를 다룬다. 특히 이 챕터에서는 2010년대 한국사회의 담론을 살펴보고, 보수 정권하의 헬조선 담론과 현 정권에서 내세우는 사다리론을 동시에 논의한다. 이 영화는 한국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급투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지 않고,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서민들을 집요하게 추적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다. 이 장에서는 과거 보수와 현재 진보로 일컬어 지는 두 정당의 실패한 경제 정책이 한국 사회를 디스토피아로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돈과 몸 거래에 대한 서사를 보여주는 다른 한국 영화도 추가로 검토한다. 이 논문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한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쟁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대신 한국 영화가 솔직하게 드러내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철저히 논하는 데 집중한다.

### 3-5. 결론

마지막 결론장에서는 서론에서 이 두 사회를 왜 디스토피아로 규정했는지를 재확인하면서 네 편의 영화를 분석한 결과에 주목한다. 동시에 본 연구가 2010년대를 강조해야 했던 이유와 일본에서 생산된 원작들의 각색이 한국의 디스토피아 풍경을 재현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

<sup>1</sup> 이 논문은 한국식 좌파와 우파로 일컬어 지는 현재 집권당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 (국민의 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고, 한국의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좌파, 우파의 정치적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검토한다.

#### 4. 나가며

이 연구는 양국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은 영화들의 디스토피아적 징후들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현재 두 나라의 정치, 사회 환경을 보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논의들은 영화를 시대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두 사회가 겪은 2010 년대의 트라우마 이후 양 사회의 변화와 흐름,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 영화의 SF, 판타지, 디스토피아 서사에 대한 확장된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Balsamo, Anne. "Forms of Technological Embodiment: Reading the Body in Contemporary Culture." *Body & Society* 1, no. 3-4 (November 1995): 215-37. doi:10.1177/1357034X95001003013.
- Bhabha, Homi K. *Nation and Narration*. London: Routledge, 1990. Bloom, Harold. *George Orwell's 1984*. New York: Chelsea House, 1987.
- Blouin, Michael J. *Magical Thinking, Fantastic Film, and the Illusions of Neoliberal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US, 2016.
- Bordwell, David, and Noël Carroll. *Post-Theory: Reconstructing Film Studie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6.
- Brayton, Sean, and Lawrence Francis. "The Racial Politics of Disaster and Dystopia in I Am Legend." *Velvet Light Trap*, no. 67 (April 1, 2011): 66-76.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746111726/>.
- Brown, Wendy. *Undoing the Demos: Neoliberalism's Stealth Revolutio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15.
- Burch, Noel, and Annette Michelson. *To the Distant Observer: Form and*

- Meaning in the Japanese Cinem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 Butler, Judith, and Gayatri Chakravorty. Spivak. *Who Sings the Nation-State: Language, Politics, Belonging*. Oxford: Seagull Books, 2007.
- Calhoun, Craig J. *Nation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7.
- Calhoun, Craig J. *Nations Matter: Culture, History, and the Cosmopolitan Dream*. London: Routledge, 2007.
- Centeno Martín, Marcos. "Introduction. The Misleading Discovery of Japanese National Cinema." *Arts* 7, no. (December 1, 2018). <http://search.proquest.com/docview/2212025299/>.
- Cheah, Pheng. *Spectral Nationality: Passages of Freedom from Kant to Postcolonial Literatures of Liber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Christopher, David, Andrew Niccol, and James DeMonaco. "The Capitalist and Cultural Work of Apocalypse and Dystopia Films." *CineAction*, no. 95 (January 1, 2015): 56-65.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746390975/>.
- Chung, Hye. "'The Host' and 'D-War': Complex Intersections of National Imaginings and Transnational Aspirations." *Spectator -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Journal of Film and Television* 29, no. 2 (October 1, 2009): 48-56. <http://search.proquest.com/docview/2272125/>.
- Chungbeom Ham. "1960s Korean SF Monster Movies and the Aspects of Film Exchange and Relationship in Northeast Asia." *Contemporary Film Studies* 15, no. 4 (November 2019): 45-67. <http://dx.doi.org/10.15751/cofis.2019.15.4.45>
- Cooper, Anna. "Neoliberal Theory and Film Studies." *New Review of Film and Television Studies: Cinema and the Cultures of Neoliberalism* 17, no. 3 (July 3, 2019): 265-277.

-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7400309.2019.1622877>.  
Cornea, Christine. *Science Fiction Cinema: Between Fantasy and Realit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Accessed April 25, 2020.  
[www.jstor.org/stable/10.3366/j.ctt1r28mq](http://www.jstor.org/stable/10.3366/j.ctt1r28mq).
- Crofts, Stephen. "Reconceptualizing National Cinema/s." *Quarterly Review of Film and Video: Mediating the National* 14, no. 3 (January 1, 1993): 49–67.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509209309361406>.
- Cubitt, Sean. "Film, Landscape and Political Aesthetics: Deseret." *Screen* 57, no. 1 (April 1, 2016): 21–34.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791552458/>.
- Cubitt, Sean. "Reviews: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by Anne Balsamo; 'Electronic Eros: Bodies and Desire in the Postindustrial Age' by Claudia Springer; 'Replications: A Robotic History of the Science Fiction Film' by J. P. Telotte." *Scree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October 1, 1997.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804916/>.
- Dissanayake, Wimal, ed. *Colonialism and Nationalism in Asian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Fisher, Mark. *Capitalist Realism: Is There No Alternative?* Winchester, UK: Zero Books, 2010.
- Fitzgerald, John, and Sechin Y.S. Chien. *The Dignity of Nations: Equality, Competition, and Honor in East Asian Nationalism*.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HKU, 2006. [muse.jhu.edu/book/5787](http://muse.jhu.edu/book/5787).
- Frame, Gregory. "The Odds Are Never in Your Favor: The Form and Function of American Cinema's Neoliberal Dystopias." *New Review of Film and Television Studies: Cinema and the Cultures of Neoliberalism* 17, no. 3 (July 3, 2019): 379–397.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7400309.2019.1622894>.
- Furukawa, Hiroko, and Rayna Denison. "Disaster and Relief: The 3.11 Tohoku and Fukushima Disasters and Japan's Media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8, no. 2 (March 2015): 225–41.  
doi:10.1177/1367877914559301.

Geilhorn, Barbara, and Kristina Iwata-Weickgenannt. *Fukushima and the Arts: Negotiating Nuclear Disaster*. 1st ed. Oxfordshire, [England] Routledge, 2017.

Gellner, Ernest. *National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Giroux, Henry A. “Between Orwell and Huxley: America’s Plunge into Dystopia.” In *Dangerous Thinking in the Age of the New Authoritarianism*, 13–23. Routledge, 2015.

Glosserman, Brad, and Scott A. Snyder.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Gonzalez, George A. *Popular Culture and the Political Values of Neoliberalism*, USA, Lexington Books, 2019.

Gord Sellar. “Another Undiscovered Country: Culture, Reception and The Adoption of The Science Fiction Genre in South Korea.” *Acta Koreana* 14, no. 1 (June 2011): 153–74.  
<https://doi.org/10.18399/ACTA.2011.14.1.007>.

Gramsci, Antonio, Virginia Cox, and Richard Bellamy. *Antonio Gramsci: Pre-Prison Writings*, 1993. <http://search.proquest.com/docview/38701928/>.

Haraway, Donna. “SF with Stengers: Asked For or Not, the Pattern Is Now in Your Hands.” *Substance* 47, no. 1 (2018): 60–63.  
<https://muse.jhu.edu/article/689014>.

Harvey, David.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Hassler, Donald M. “Japanese Science Fiction: A View of a Changing Society, and: Rationalizing Genius: Ideological Strategies in the Classic American Science Fiction Short Story (review).” *MFS Modern Fiction Studies* 36, no. 2 (1990): 313–314. <https://muse.jhu.edu/article/243194>.

- Hayek, Friedrich A. von, and Stephen F. Frowen. *Hayek: Economist and Social Philosopher: a Critical Retrospec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 Higson, Andrew. "The Concept of National Cinema." *Screen* 30, no. 4 (1989): 36-47.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311469071/>.
- Huxley, Aldous. *Brave New World*. 1st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ed.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2006.
- Ian, Fraser. 2018. "Review of Contemporary Cinema and Neoliberal Ideology." *Frames Cinema Journal*. Accessed January 24, 2020. <http://framescinemajournal.com/article/contemporary-cinema-and-neoliberal-ideology/>
- Iles, Timothy. *The Crisi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Japanese Film :Personal, Cultural, National*. Boston: Brill, 2008.
- Jameson, Fredric. "Progress versus Utopia; Or, Can We Imagine the Future? (Progrès Contre Utopie, Ou: Pouvons-nous Imaginer L'avenir)." *Science Fiction Studies* 9, no. 2 (1982): 147-58. Accessed April 25, 2020. [www.jstor.org/stable/4239476](http://www.jstor.org/stable/4239476).
- Kaplan, E. Ann. *Climate Trauma: Foreseeing the Future in Dystopian Film and Fic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16. Accessed February 7, 2020. [www.jstor.org/stable/j.ctt19cc21n](http://www.jstor.org/stable/j.ctt19cc21n).
- Kapur, Jyotsna, and Sunny Yoon. "Gender, Neoliberalism and Contemporary Asian Cinemas." *Visual Anthropology* 22, no. 2-3 (March 30, 2009): 91-94.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8949460802623507>.
- Karatani, Kojin, and Joel Wainwright. "'Critique Is Impossible without Moves': An Interview of Kojin Karatani by Joel Wainwright."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2, no. 1 (March 2012): 30-52. doi: 10.1177/2043820612436923.
- Karatani, Kojin. "Beyond Capital-Nation-State." *Rethinking Marxism* 20, no.

4 (October 1, 2008): 569–595.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8935690802299447>.

Karatani, Kōjin.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from Modes of Production to Modes of Exchange*. Translated by Michael K. Bourdagh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4.

Kim, Jaecheol. “Biocalyptic Imaginations in Japanese and Korean Films: Undead Nation–States in *I Am a Hero* and *Train to Bus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20, no. 3 (July 3, 2019): 437–451.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4649373.2019.1649015>.

Kim, Se Young. "Crisis in neoliberal Asia: violence in contemporary Korean and Japanese cinema." PhD thesis., University of Iowa, 2016.

<https://doi.org/10.17077/etd.ii5i7z1z>

King, Stephen. *The Dark Tower I: The Gunslinger*. New York, the USA: Scribner, 2016.

Kubo, Yutaka. “Still Grieving: Mobility and Absence in Post–3/11 Mourning Films.” *Journal of Japanese and Korean Cinema* 11, no. 1 (January 2, 2019): 55–67.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7564905.2019.1600695>.

Lee, Fred, and Steven Manicaster. “Not All Are Aboard: Decolonizing Exodus in Joon–Ho Bong’s *Snowpiercer*.” *New Political Science* 40, no. 2 (April 3, 2018): 211–226.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7393148.2018.1449405>.

Lee, Meera. “Monstrosity and Humanity in Bong Joon–Ho’s *The Host*.”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26, no.4 (November 1, 2018): 719–747. <http://search.proquest.com/docview/2160354914/>.

Lee, Nikki J. Y. "Localized Globalization and a Monster National: "The Host" and the South Korean Film Industry." *Cinema Journal* 50, no. 3 (2011): 45–61. Accessed April 8, 2020. [www.jstor.org/stable/41240713](http://www.jstor.org/stable/41240713).

- Mark Bould. *Science Fiction*. Abingdon, UK: Routledge, 2012.
- Martinez, Dolores. "Bodies of Future Memories: The Japanese Body in Science Fiction Anime." *Contemporary Japan* 27, no. 1 (March 1, 2015): 71–88.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515/cj-2015-0005>.
- Matthew, Robert. *Japanese Science Fiction : A View of a Changing Society*. Oxford, England: Niss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University of Oxford, 1989.
- Mazierska, Ewa., and Lars Lyngsgaard Fjord. Kristensen. *Contemporary Cinema and Neoliberal Ideology*. Abingdon, Oxon: Routledge, 2018.
- McGilligan, Patrick. *Fritz Lang: The Nature of the Beas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3.
- Miyoshi, Masao., and Harry D. Harootunian, eds. *Learning Places : the Afterlives of Area Stud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 Moylan, Tom. *Demand the Impossible: Science Fictio and the Utopian Imagination*. Bern, Suisse: Peter Lang, 2014.
- Napier, Susan J. "Panic Sites: The Japanese Imagination of Disaster from Godzilla to Akir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9, no. 2 (1993): 327–51. Accessed April 25, 2020. <https://doi.org/10.2307/132643>.
- Napier, Susan. *Anime from Akira to Princess Mononoke: Experiencing Contemporary Japanese Animation*. Basingstoke: Palgrave, 2001.
- Orbaugh, Sharalyn. "Tokyo Cyberpunk: Posthumanism in Japanese Visual Culture." *Science Fiction Film and Television* 7, no. 3 (October 1, 2014): 449–468.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650375075/>.
- Powers, Richard, Hidetoshi Kato, and Bruce Stronach. *Handbook of Japanese Popular Culture*, New York: Greenwood Press, 1989.
- Renan, Ernest. *What Is a Nation?: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Translated and Edited by M.F.N. Gigliol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 Saad-Filho, Alfredo, and Deborah Johnston, eds.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London: Pluto Press, 2005.
- Sang Jun Eom. "A Study on Political Imagination Represented in Korea SF Films in 21st century -Focused on Films, " *Cinema* 6, no.2 (2014): 91-126.  
<http://kiss.kstudy.com.ez.wul.waseda.ac.jp/thesis/thesis-view.asp?key=3216172>
- Seed, David, ed. *A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Malden, MA: Blackwell Pub, 2005.
- Shin, Hyewon. "Voice and Vision in Oshii Mamoru's Ghost in the Shell: Beyond Cartesian Optics." *Animation* 6, no. 1 (March 2011): 7-23. doi: 10.1177/17468477110391506.
- Smith, Anthony D.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1991.
- Smith, Anthony D.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2nd ed. Cambridge: Polity Press, 2010.
- Sobchack, Vivian. *Carnal Thoughts: Embodiment and Moving Image Culture*.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Accessed April 25, 2020. [www.jstor.org/stable/10.1525/j.ctt1pnx76](http://www.jstor.org/stable/10.1525/j.ctt1pnx76).
- Song Hyo-jeong. 송효정. (2014). Mad Scientist's Laboratory and Imperialistic Nostalgia— The Study of Korean Gothic SF Films in the 1960s.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20(3), 271-308.  
<https://doi.org/10.18856/jpn.2014.20.3.009>
- Spivak, Gayatri Chakravorty.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Starrs, Roy, ed. *When the Tsunami Came to Shore: Culture and Disaster in Japan*. Leiden: Global Oriental, 2014. Tatsumi, Takayuki, Istvan Csicsery-Ronay, and Christopher Bolton, eds. *Robot Ghosts and Wired Dreams:*

*Japanese Science Fiction from Origins to Anim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7.

Taylor, Brandon, and Bong Joon-ho. "The Ideological Train to Globalization: Bong Joon-Ho's *The Host* and *Snowpiercer*." *CineAction*, no. 98 (January 1, 2016): 44-48.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832754637/>.

Thouny, Christophe, and Mitsuhiro Yoshimoto, eds. *Planetary Atmospheres and Urban Society after Fukushima*.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2017.

Vitali, Valentina, and Paul Willemen, eds. *Theorising National Cinema*.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2006.

Vivian Sobchack. "Sci-Why?: On the Decline of a Film Genre in an Age of Technological Wizardry." *Science Fiction Studies* 41, no. 2 (2014): 284-300. Accessed April 25, 2020. <https://doi.org/10.5621/sciefictstud.41.2.0284>

Wada-Marciano, Mitsuyo. "Japanese Cinema in the Wake of Fukushima." *Journal of Japanese & Korean Cinema* xi, no. 1 (May 1, 2019): 33-34. <http://search.proquest.com/docview/2247702132/>.

Wada-Marciano, Mitsuyo. "What Animals, Women, Children, and Foreigners Can Tell Us About Fukushima." *Journal of Japanese and Korean Cinema* 11, no. 1 (January 2, 2019): 35-54.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7564905.2019.1600696>.

Wells, Sarah Ann, and Jennifer Feeley, eds. *Simultaneous Worlds: Global Science Fiction Cinem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Won, Dongkyu, Sunhee Yoo, Hyungsun Yoo, and Jongyeon Lim. "Complex Adaptive Systems Approach to Sewol Ferry Disaster in Korea."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1, no. 1 (December 2015): 1-18. <https://doi.org/10.1186/s40852-015-0023-7>

Woo, Hyekyung, Youngtae Cho, Eunyoung Shim, Kihwang Lee, and Gilyoung Song. "Public Trauma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Role of Social Media in Understanding the Public Mood."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 no. 9 (September 1, 2015): 10974–10983.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775400411/>.

Yoshimoto, M. (1991). "The Difficulty of Being Radical: The Discipline of Film Studies and the Postcolonial World Order. (Special Issue: Japan in the World). *Boundary 2*, 18(3), 242–257. <https://doi.org/10.2307/303211>

Yoshimoto, Mitsuhiro. "Melodrama, Postmodernism, and Japanese Cinema." In *Melodrama and Asian Cinema*, 101– 126.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https://doi.org/10.1017/CBO9781139172523.006>

Zizek, Slavoj. *Like a Thief in Broad Daylight: Power in the Era of Post-Human Capitalism*, the UK: Allen Lane, 2018.

# 指紋押捺拒否運動への梶村秀樹による活動について

## —물례の会での活動を中心に—

大槻和也（同志社大学大学院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研究科博士課程）

### 1. はじめに

1952年4月28日に施行された外国人登録法。1955年に改正され、その14条に規定された外国人への指紋押捺義務に対し、1980年9月10日に在日朝鮮人の韓宗碩氏が拒否をして指紋押捺拒否運動の口火を切った。1980～90年代にかけて在日朝鮮人を中心として展開した指紋押捺拒否運動は、他の在日外国人も運動に合流しつつ、日本の外国人登録体制に対する市民的不服従の運動として注目を集めた。運動の成果として、2000年の改定外国人登録法施行によって指紋押捺制度は廃止された。

本発表では指紋押捺拒否運動への梶村秀樹の活動に注目し、彼がどのような姿勢でこの運動に関わっていったのかについて考えるものである。なお時間と紙幅の制約のため、調布市における地域市民団体である「물례の会」における梶村秀樹の活動を中心に論じる<sup>1</sup>。

指紋押捺拒否運動の現場で、1980年代を中心に指紋拒否者および支援者の手によるミニコミや書籍が全国の各地域で多数刊行された。90年代以降、それら資料や体験にもとづいた論文が、寺島俊穂（1995, 1996）<sup>2</sup>、金隆明（2003）<sup>3</sup>として出ている。寺島は指紋押捺拒否運動を日本社会における非暴力抵抗、市民的不服従の運動であるとし、「普通の個人が不正なる現実に関き

---

<sup>1</sup> 梶村秀樹は指紋押捺拒否裁判での証人尋問、指紋押捺拒否予定者会議での活動など多方面にわたって活動していたが、それらについては別の機会で論じることとする。

<sup>2</sup> 寺島俊穂（1995）「指紋押捺拒否運動の思想と運動（一）」『大阪府立大学紀要（人文・社会科学）』43号、pp.17-29. および寺島俊穂（1996）「指紋押捺拒否運動の思想と運動（二）」同書、44号、pp.15-28.

<sup>3</sup> 金隆明（2003）「指紋押捺制度と在日朝鮮人の人権」『姜徳相先生古希・退職記念 日朝関係史論集』新幹社、pp.682-705.

かけ、現実を変えていくことに成功した事例」<sup>4</sup>と位置づけている。金は指紋押捺制度という「内外人不平等」の矛盾を「日本人自身に感覚できる形で問題提起できた」<sup>5</sup>ことに指紋押捺拒否運動の意義を求めている。佐藤信行（2003）<sup>6</sup>は指紋拒否運動に現場で携わった活動家の手による論文で、指紋拒否運動の推移を非常にきれいに整理してある。これらの研究は、指紋押捺拒否運動を概略的ないし全体的に分析し、その意義や特徴を見出している点が重要である。

一方、梶村の社会運動との関わりについての先行研究は、姜元鳳（2014）<sup>7</sup>が関係者との手紙のやりとりなども駆使し、梶村の諸活動を年譜形式にして整理している。また、梶村の在日朝鮮人論を扱った先行研究は山本興正（2016）<sup>8</sup>が、金嬉老裁判に関わりながら経験した、弁護団や公判対策委員会の様々な議論、葛藤の中に梶村の思想を位置づける作業をしている。しかし、梶村の指紋押捺拒否運動への参加とその意味について分析した論文は存在しない。

本発表における主な研究資料は『梶村秀樹著作集』を含む梶村秀樹が書いた様々な論考、そして물례の会が発行したパンフレットである<sup>9</sup>。

## 2. 물례の会における梶村秀樹

### 2.1 1980年における梶村の課題意識

指紋押捺拒否運動が始まる直前にあたる1980年3月における梶村の課題意識の一端を指し示すものとして、「朝鮮からみた明治維新」<sup>10</sup>という文章がある。

---

<sup>4</sup> 寺島（1996）、前掲論文、p. 15.

<sup>5</sup> 金（2003）、前掲論文、p. 701.

<sup>6</sup> 佐藤信行（2003）「外国人登録法と指紋押捺拒否運動」白石孝・小倉利丸・板垣竜太編『世界のプライバシー権運動と監視社会——住基ネット、IDカード、監視カメラ、指紋押捺に対抗するために』明石書店、pp. 93-120.

<sup>7</sup> 姜元鳳（2014）「가지무라 히데키의 사회운동과 한국사 연구」강원봉ほか、강원봉·도베 히데아키·미쓰이 다카시·조관자·차승기·홍중욱『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아연출판부、pp. 26-41.

<sup>8</sup> 山本興正（2016）「金嬉老公判対策委員会における民族的責任の思想の生成と葛藤——梶村秀樹の思想的関与を中心に」『在日朝鮮人史研究』No. 46、緑陰書房、pp. 139-171.

<sup>9</sup> なお、近いうちに물례の会関係者へのインタビューも実施する予定である。それゆえ、本発表は研究の途中報告としての性格が強いものであることをあらかじめお断りしておく。

<sup>10</sup> 梶村秀樹（1992）「朝鮮からみた明治維新」（初出は1980年3月）『梶村秀樹著作集第1巻』明石書店、pp. 136-150.

この文章では、竹内好のように日本近代史の中に「連帯」の思想を見つけ出すべくアジア主義を再評価せずに「侵略史一色の日本近代史像」を提示するという教育現場での実践に対する自己省察からはじまる。こうした実践には生徒から後ろ向きの反応が強く、歴史から何を「よりどころ」として学ぶのかという竹内の問題関心に対する答えに窮するというジレンマと梶村は向き合うことになる。そのジレンマに対して、「民衆」の論理と色川大吉が提唱した「未発の契機」による民衆の動きの地下水を探る営為の可能性を認め、梶村は秩父困民党の権力認識に注目している。

しかし、日本の民衆の「未発の契機」を辿るだけでは朝鮮問題においてはなお不十分であり、未発の契機論の応用として日本による侵略の流れに「からめとられ」ながら生き、不満を持ちながら「自分の主体的理由によって」不満を表出できなかった事例として、自分の父、祖父の生きざまを否定的に振り返っている。

そして、結論に近い部分で「呪縛から自己解放するために、むしろ「近代」の与える最良のものを十分にこなしきることによって、それへの内心のコンプレックスを払拭していくことが、私の課題だろう」と述べている<sup>11</sup>。ここで梶村が言う「近代」の中身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

この文章の前半部において梶村は 1968 年に在日アジア留学生がアジア学生文化協会に明治維新の志士に関するセミナーを開いてほしいと提案したエピソードを紹介している。そこで梶村は明治維新を遂行した日本の志士が直面した一つの岐路として、目標とする欧米近代を「生産力・軍事力を中心として」か、それとも「社会制度や民権・平等の思想を中心として」理解するのかという岐路を挙げている。

そして前者を追求した明治維新は「反面教師」であり、在日アジア留学生が明治維新に「学ぶ」際には前者と後者を区別し、批判的に学ぶ主体性が前提になっていたと梶村は判断している<sup>12</sup>。このことから、この文章の結論で梶村が「十分にこなしき」ろうと考えた「「近代」の与える最良のもの」とは、社会制度や民権・平等の思想が中心的内容であることがわかる。

同様の認識は 1984 年 11 月に行った講演にも示されている<sup>13</sup>。ここにおいて梶村は、日朝の近代思想のあり方を論じる中で近代のとらえ方について二つに分けている。「ヨーロッパの軍事技術、統治技術、制度を重視するとらえ方」と「主権在民、民主主義の側面を重視するとらえ方」である。そして日本の思

---

<sup>11</sup> 同書、p. 150.

<sup>12</sup> 同書、pp. 138-140.

<sup>13</sup> 梶村秀樹 (1995) 「朝鮮をどう教えるか 日本人の立場からの「総説」」梶村秀樹著、石坂浩一編『朝鮮を知るために』明石書店、pp. 51-68.

想家には前者の考えが強く、それが富国強兵の政策につながり、一方で後者の考えが根絶したと説く。他方、朝鮮の思想家は日本とは対照的に、「抽象的な原理」や「哲学的原理」を固めていく傾向が強かったとみている<sup>14</sup>。ここで梶村は明言してはいないが、朝鮮の思想家に後者の側面が強かっ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

これらのことからいえることは、梶村は近代概念を主として2つの側面に分け、近代がもつ生産力、軍事力、統治技術などの抑圧的側面ではなく、民権・平等の思想や主権在民、民主主義に可能性を見出していることである。そして近代の中にあるこれら最良のものを「こなしきる」こと、徹底していくことを通じて、竹内のように存在しない「連帯」の思想にすぎることではなく、他方で祖父や父が時勢に反抗できずに「からめとられ」てしまったことも反面教師とし、「呪縛から自己解放する」ことを梶村は課題としたと考えられる。しかし、ここで求めた近代とは後にみるように、指紋押捺制度の撤廃をはじめとした在日朝鮮人の生活権の獲得である。それは戦後民主主義という近代にまわりついている植民地主義的排除の克服を実践を通じて「こなしきる」ことである。

これと関連したもう一つの課題意識は、代替的文化の問題である。日本近代史における連帯の不在と、自身の父、祖父をも侵略の流れに「からめとられた」事例として否定的に振り返った後に、梶村は「それではそれとことなるどのような我々の「文化」を創るのかという課題があることに気づいたのは最近のことである」と書いている<sup>15</sup>。そして論考の末尾には究極的課題としての「朝鮮民衆との連帯を志向するのに(中略)私にはまだまだ歴史に学ぶことがあるように思える」とある。

論考執筆時点の1980年3月において「最近」気づいたという、創るべき「文化」とは何なのか。「最近」を1970年代後半以降だとすると、それ以降の梶村の活動から「文化」としてうかがえるものは、自分の住む地域における歴史の掘りおこしを含む、朝鮮人庶民(民衆)と共同の文化運動なのではないかと推測できる。

## 2.2 물례の会に関わる経緯と梶村の位置

この時期の活動として重要なのは、梶村も1979年秋の発足時から運営委員としてかかわっていた물례の会(のちに「調布물례の会」と改称)への運動参加である。梶村秀樹が逝去したのちに出された追悼文集から、물례の会に梶村がかかわるようになった経緯、そして梶村の位置などを記していきたい。会の代表者である坂内宗男さんによると、もともと1973年ごろから調布の川べり

<sup>14</sup> 同書、p. 66-67.

<sup>15</sup> 前掲、梶村秀樹(1992)、pp. 149-150.

に住む在日朝鮮人の個別訪問活動を地域の人々がしており、それを知った梶村が共に参加したのがそもそもの活動の始まりであるという。この活動をしていた人々が中心となり 79 年に「물례の会」を発足し、個別訪問活動を中心に、多摩川地域の在日朝鮮人史に関する講座、就職差別の問題などをテーマに歴史講座や教育講座を催して日本と朝鮮との問題を学ぶようになった<sup>16</sup>。

次に、물례の会における梶村の位置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坂内さんは当時を「梶村さんも、私どもと同じく、ビラをたずさえ（時にはいちげちゃんをおんぶして）、家庭を訪ね、集会では司会、録音、受付係などを分担されました。とくに市民講座等のお知らせのためのはがき印刷（カード・プリンターで約二百枚）は梶村さんの独壇場でありました<sup>17</sup>と、裏方の作業も含めて積極的に活動をしていたことを振り返っている。また会の中心メンバーの一人であった倉橋葉子さんによると、「その時点での運動の状況や意味をこまやかに話され、運動の方向づけをしてくださった」と梶村の役割を回顧している<sup>18</sup>。会員の山本伸司さんも、「対立的討論もじっと耳を傾けられ、やさしいながらもキチンと整理されておりました」と議論の際の梶村の位置について語っている<sup>19</sup>。さらに会の共同代表の一人であった姜栄一さんによれば、梶村は市民講座のテーマ設定、講師の選定なども引き受けていた。また忙しくても「地域訪問には欠かさず参加をしておられ地域の朝鮮人とのふれ合いを大切にし」ていた。そして梶村は「물례の会の代表、アドバイザー、案内を印刷する裏方などの물례の会のシンボリック的存在」であったと当時を振り返る<sup>20</sup>。

これらの追悼文から、梶村は물례の会での議論では参加者の話を傾聴しつつさりげなく議論をリードし、ビラやはがきの作成、印刷、配布といった裏方の仕事も積極的にこなし、かつ地域訪問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大事に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そこから浮かび上がるイメージは、大学の知識人としてのそれではなく、地道な市民活動に従事する活動家としてのそれである。

물례の会として最初に指紋拒否関係の集会をもったのは、1983年11月13日に調布市民センターで行われた「ヤンヨンジャ（梁容子）コンサート」である。同氏による歌を通して指紋問題をアピールするコンサートを開催した。コンサートの間には 1980 年に指紋押捺拒否をして運動の口火を切った韓宗碩さんの

---

<sup>16</sup> 坂内宗男（1989）「梶村秀樹先生を悼む」「故梶村秀樹先生をしのぶ市民の集い」実行委員会編集・発行『追悼・梶村秀樹さん』、pp. 68-69.

<sup>17</sup> 同上、p. 69.

<sup>18</sup> 倉橋葉子（1990）「梶村先生を想う」調布물례の会『물례の会シリーズ9 梶村秀樹と調布물례の会 梶村秀樹さんを悼む』p. 33.

<sup>19</sup> 山本伸司（1990）「梶村先生の思いで」前掲、調布물례の会（1990）、p. 39.

<sup>20</sup> 姜栄一（1990）「故梶村秀樹先生を偲んで」前掲、調布물례の会（1990）、p. 29.

講演が行われ、韓さん一家の指紋押捺拒否を支える会、李相鎬さんを支える会から連帯の挨拶がなされた<sup>21</sup>。

### 2.3 「外登法による指紋押捺制度撤廃を求める調布市民の会」における梶村秀樹の活動

1985年の外国人登録大量切替に向け、83年9～12月にかけて民団は外登法改正を求める100万人署名運動を開始し、84年10月には青年組織の韓国青年会が闘争委員会を組織した。また84年9月には指紋押捺拒否予定者会議が発足し、85年の切替に対し指紋拒否予定の意思表示をするという運動を開始した。その動きに対し、指紋拒否予定者を囲む市民運動体が全国で84～85年までに150以上誕生する。84年12月時点で拒否者は82名を数えた。

1985年1月には川崎市長が指紋拒否者を警察に告発しないという「不告発宣言」をする。それに対し警察は自治体の告発なしに指紋拒否者を逮捕しはじめ、法務省は拒否予告運動に対する対抗措置として5月14日に「5.14通達<sup>22</sup>」を出し弾圧にのりだした。こうした国側の強硬策に対し、さらに多くの指紋拒否者が出るとともに、韓国、朝鮮以外の国籍の外国人も拒否運動に参加した。また、5.14通達をめぐりその不実施、通達返上を求めて全国の自治体窓口で要請行動や交渉が取り組まれた。民団は5～10月まで指紋押捺を留保する運動を展開した。85年12月時点で指紋拒否者1944名、留保者2737名にのぼった<sup>23</sup>。

このように指紋押捺拒否運動が盛り上がりを見せていた時期、물례の会の会員を中心として、指紋拒否運動に特化した団体づくりが進められた。「外登法による指紋押捺制度撤廃を求める調布市民の会」（以下「調布市民の会」と表記）は1985年4月ごろから結成準備が整えられた。調布は三多摩地域で最も在日朝鮮人居住者が多く、물례の会の活動もあることから日本人と朝鮮人と

<sup>21</sup> 「調布물례の会活動日誌（30年の歩み）」（2010）調布물례の会発行『물례の会シリーズ13 日本の外国人政策と在日コリアン』、p. 98.

<sup>22</sup> これまでの登録事務要領の見直し。登録事務を行う自治体は、①インクに代わって無色の薬液を使い、②拒否者を「指紋不押なつ意向表明者」として説得期間を設け、1か月後の交付予定期間指定書を渡し出頭を求め、②を3回繰り返しても押捺しない場合は同一市町村にいる保証人2人の陳述を得て「指紋不押なつ」と赤字で記入した登録証を交付、③②の「指紋不押なつ」者を直ちに告発し、④登録済証明書（住民票写しに相当）交付の際には「指紋不押なつ意向表明者」には「確認未了」と、「指紋不押なつ」者には「指紋不押なつ」と記入することを自治体に求めている。

<sup>23</sup> 以上、1983～85年にかけての指紋押捺拒否運動の推移については5.14通達の内容も含め前掲、佐藤（2003）、pp. 104-108.

が共に動ける団体づくりの下地が整えられていた。同年 6 月 16 日には調布市民の会の結成集会を行い、結成集会には民団、総連に所属している在日朝鮮人や地域に住む高校生、高校教員など、61 名が集まった。ここで、市当局、法務省、警察に提出する決議文、要望書が採択された<sup>24</sup>。調布市において指紋拒否者、留保者が 70 名を数える中、梶村は調布市民の会代表の一人として尽力した<sup>25</sup>。前出の姜栄一さんによると梶村は市民の会でも「代表として対市交渉、地域訪問の先頭に立って」活動していたという<sup>26</sup>。

ここでは特に、要望書の表現の独特さに注目したい。85 年 6 月 3 日、まだ調布市民の会結成の準備段階であるが、調布在住の R さんが指紋押捺拒否をした際に市の登録窓口に梶村をはじめ 10 名程度で赴き、新規登録証の発給を勝ち取る際に提出した要望書がある。この要望書には「同じ地域に住む者として外国人市民の人権を守る観点から、外国人登録法の指紋押捺制度・常時携帯義務等を廃止すべきだとかねて考えてきましたが、私たちのよく知る」R さん「の意思表示を全面的に支持し、ともに行動していこうとするもの」<sup>27</sup>と書かれている。「私たちのよく知る」という表現から、指紋拒否者となった R さんと물례の会にはすでに関係が構築された上で、指紋押捺拒否への支援運動がな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물례の会があってはじめて調布市民の会が成り立っているともいえ、2つの活動はいわば地続きといえる。重要なのは、물례の会を通じて日本人と朝鮮人とが共に歴史と現在を考える経験をし、それが土台となって指紋押捺拒否運動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指紋拒否の行動の前にすでに共生の経験がつくられ、共生という経験をくぐりぬけた表現となっている。その意味で물례の会の活動は、朝鮮人が指紋拒否などの生活上の不利益を被るリスクが高い不服従の行動をする際のハードルを少しでも下げさせてくれる、文化的土台になりえたともいえる。

そして記録によると 1985 年 6 月～9 月にかけて市長交渉、市部課長交渉に少なくとも 4 回梶村が参加している<sup>28</sup>。また、調布市民の会会報『ひとさしゆ

---

<sup>24</sup> 山本伸司（1985）「「指紋押捺制度撤廃を求める調布市民の会」活動報告」물례の会発行『물례の会シリーズ 7 指紋押捺制度と在日韓国・朝鮮人 市民講座の記録』、p. 40.

<sup>25</sup> 前掲、坂内（1989）p. 69.

<sup>26</sup> 前掲、姜（1990）、p. 29.

<sup>27</sup> 前掲、물례の会（1985）、pp. 46. 調布市民の会結成前であるため、「ムルレの会（代表 梶村秀樹）」という署名がある。なお、同様の表現は 85 年 8 月 19 日に調布市長あてに提出した K さんの指紋拒否行動を支援する要望書にもある。同書、p. 48.

<sup>28</sup> 「第三章 年譜」梶村秀樹著作集慣行委員会編（1990）『梶村秀樹著作集 別巻 回想と遺文』明石書店、pp. 320-321. なお、年譜に載っていない交渉もある

びに自由を』に数多く寄稿し、指紋拒否の運動の動向や調布市当局との交渉経過報告、87年改定外登法の問題点などについて記している。

86年1月～8月にかけては、会報で「指紋押捺留保・拒否QアンドA連載」という連載を行った。これは1984年中の拒否者に対し警察が市役所からの告発なしに逮捕の動きが出ていることに留意し、調布市民の会への相談をよびかける中で書いた連載である<sup>29</sup>。例えば警察による任意出頭の呼び出しに対しどう対応すれば良いかという質問に対し、日時指定されている葉書などの場合は断っても大丈夫だが、「いつでもいいからこい」とか、早朝に係官が文書を持って自宅に来たりするようになったら危ないと、指紋拒否者が経験した警察の動きを幅広く熟知した回答をしている。また逮捕を防ぐためにはどうすればよい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一回だけ呼び出しに応じれば大丈夫です。何をどうしゃべるか、余計な質問には答えないで良いなど、充分打ち合わせてから行くこと」と答えている<sup>30</sup>。このように指紋拒否にまつわる不安に対し具体的に応えている。

指紋押捺拒否運動は悪法をただすために意識的に「不法」行為をなすことで不服従の意思表示をする運動である。その際、拒否をする在日朝鮮人は一介の生活者である。そのため、拒否者にとっては大きなリスクが伴い、生活上の不利益を被るという不安がつきまとう運動でもある。ここで書かれているQ&Aは、指紋押捺留保や拒否をしている、または考えている在日朝鮮人が抱えるそうした不安に対しても役に立つ、現場での経験に裏打ちされたものである。まさに現場で活動していた梶村だからこそできる連載であるといえる。この連載からも、生活者としての運動に寄り添う梶村の姿勢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

梶村が様々な活動に従事した動機は何だったのだろうか。それを考える際に手がかりとなる文章がある。1985年7月に行われた講演で梶村は、日本人が単に支援するレベルを超えた独自の闘いを創る必要があるとし、比喩的に「外登法違反は日本人だってできる」と説いている。指紋拒否者と共に「独自の具体的な課題をどうやって日本人の主体において担うか」が問われているとし、自分たちの住んでいる地域においてすべき仕事が膨大にあるという。それらをこなさなければ「数多く同時多発的に行われている今進行している闘いは維持できない」としている<sup>31</sup>。主体性を朝鮮人にのみあずける「支援」というレベルを超え、日本人が独自に、主体的に指紋拒否運動を担い、創っていく

---

可能性が高い。

<sup>29</sup> 「市民の会会報「ひとさしゆびに自由を」の歩み」前掲、調布 물리 2000 (1990)、p. 50.

<sup>30</sup> 前掲、調布 물리 2000 (1990)、pp. 10-11.

<sup>31</sup> 梶村秀樹(1985)「指紋押捺拒否の意味—外登法廃止にむけての私たちの課題」『日本・朝鮮・中国』10、pp. 23.

ことの重要性を説くことで、植民地期から戦後民主主義に至るまで継続する朝鮮人の生活権に対する剥奪行為に終止符を打ち、自分たちがつくってきた差別構造を打破していくという梶村の意気込みがこの講演からうかがえる。

### 3. 指紋拒否運動に梶村が見ずえる地平

1985年に比べ、人数的には千人あまりに拒否者が減少した1986年の12月に発行された「指紋の闘いは終わっていない」<sup>32</sup>は、梶村が指紋押捺拒否運動の形態や特質、運動参加の意味、さらに運動の目標をどのように見定めているかを知るのに参考になる。

梶村はこの文章を、Uさんという人物の指紋押捺拒否運動、外国人管理批判に対する懐疑的な問いに答える形式で叙述している。Uさんが誰であるのかは現時点で不明だが、問答からヨーロッパに関心がある日本人ということは窺い知れる。

Uさんの「指紋問題はもう終わった」という言説に対し、梶村は明確に反論する。梶村は指紋問題の本質を「国家と市民生活を営む個人との関係はどうあるべきかという人権の問題、ひとりひとりの決意に基づく良心的不服従の行動」とみている<sup>33</sup>。また、「日本においてはじめて、下から盛り上がってきた人権のための良心的不服従運動」と、その日本における人権運動としての先進性と特質を強調している。民主主義を標榜はしていても実際には自他の人権を尊重することが身についていない日本社会において、良心的不服従による行動は憲法12条の規定に照らしても「お手本とすべき模範的な生き方」であり、運動に関わる中で「自分の人権感覚をますますとぎすませ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梶村は述べている<sup>34</sup>。

ただ、韓宗碩さんの一審判決をひき、この問題は指紋押捺強制の人権侵害一般の問題ではなく、指紋を強制されない人権が外国人には制限されても仕方ないとする論法をどう解体していくかという問題であり、「人権に例外が設けられること」に対する問題であるという<sup>35</sup>。そして、法務省側が掲げる表面的な理由ではなく、外登法が表向きは犯罪捜査への流用を禁じているはずの「指紋を最も頻繁に利用しているのが警察である」という公然の秘密に、国が指紋に

---

<sup>32</sup> 梶村秀樹(1993)「指紋の闘いは終わっていない」(初出は1986年12月)

『梶村秀樹著作集 第6巻 在日朝鮮人論』明石書店、pp. 412-425.

<sup>33</sup> 同書、p. 412.

<sup>34</sup> 同書、p. 416.

<sup>35</sup> 同書、p. 416.

固執する理由があるとみる<sup>36</sup>。

Uさんの「指紋より重要な課題があるのでは」という問いに対しては、指紋運動の性質とそれに伴う運動参加の意味を論及することで答えている。指紋運動は拒否者も支援者も生活を営む市民であり、「ラジカルな運動」ではない。そして一発勝負ではなく、地道な課題が多くある運動である。しかしそれゆえに、役所への要請、署名活動、投書などの「誰にでもたやすくできることが沢山」ある運動でもある。指紋の運動は「別に革命的でも政治的でもないけれども、その代わりに誰でもその気になればその側に立つことができる、自分自身にとっても積極的な意味がある創造的な運動」と位置づけている<sup>37</sup>。そして、「誰にでもたやすくできること」による参加がもたらす究極的目標として、結論で次のように説得している。

小さな「共に生きようとする」意思表示の輪が、この社会の中に無数に生れ、卑劣な脅迫状など出てくる余地がないほどになっていくとき、差別的な外登法も、警察や入管当局のかたくなな差別的姿勢も、本当の意味で存立の基盤を失うのです。<sup>38</sup>

ここで梶村は、民族差別を許さずに「共に生きようとする」対抗的世論が日本社会でもちうる可能性を示している。その可能性とは、対抗的世論が日本社会を覆うときには、入管法・外登法による制度的差別と、その主体たる警察・法務省・入管当局、さらに外国人管理を担う当局を支える日本人の排外主義による社会的差別の複合体が「本当の意味で存立の基盤を失う」という積極的な意味をもつという可能性である。それは未だかつて実現したことはないものの、可能態としては存在し続ける。梶村が李仁夏牧師の「共に生きる」という言葉を「共に生きようとする」と、現在と未来に向けた意思表示を示す語尾に変えていることから、共生とは追求すべき可能態の出発点として認識し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梶村はここに、指紋押捺拒否運動のオルタナティブとしての到達点、究極的目標を設定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梶村自身も積極的に参加し、他の多くの日本人も参加することで実現する可能性のある、日本社会を覆いつくすような対抗的世論。梶村が指紋押捺拒否運動に求めたのはこの対抗的世論であったと考えるべきである。その意味では、梶村が求めた指紋押捺拒否運動は未だその到達点に達しておらず、いまだに未完だということもできるだろう。

指紋押捺拒否運動は 2000 年の改定外登法の施行により指紋押捺条項が全廃

---

<sup>36</sup> 同書、p. 418.

<sup>37</sup> 同書、pp. 424-425.

<sup>38</sup> 同書、p. 425.

されたことより、狭義に解釈すれば当時係争中の裁判を除いて終了したことになる。もちろん常時携帯義務条項の撤廃などを含めるとそれより後のことになるのだが、外国人管理の条項の撤廃という意味に限定するのではなく、上述の梶村による究極的目標に焦点を合わせて指紋押捺拒否運動を眺めた時には、その運動課題が広義には未完の課題である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それは、1980年における梶村の課題意識にひきつけて言うならば、「近代」の与える最良のものを十分にこなしきる」社会の実現と言い換えることもできよう。

#### 4. おわりに

本発表では、梶村秀樹による指紋押捺拒否運動への活動に関する一断面を提示した。本発表で示した梶村の近代をこなすという課題意識、特に在日朝鮮人の生活権の獲得という近代的課題は現在進行形の課題でもある。また代替的文化を創っていくという課題とその一つとしての물리(物理)の会での活動、さらにそれに密接にリンクした調布市民の会における指紋押捺拒否運動への参加からは、無名の生活者の小さな一つ一つの運動に寄り添うという梶村の活動姿勢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さらに、民族差別を許さないという対抗的世論の形成と全面的展開に指紋押捺拒否運動の究極的目標を設定した梶村の運動観は、現在においても参照点とすべきものである。嫌韓の嵐が吹き荒れ、在日朝鮮人に対する制度的差別、社会的差別が強まっている現在、これらの梶村の活動目録から、私たちが参考にできることは多いし、また参考にしていけばいいと考えている。

梶村による指紋押捺拒否運動の参加と彼の在日朝鮮人史研究との関係性については、また別の機会に論じようと考えている。

# 呪宝譚の諸相

## —ファスブンと塩吹臼を手掛かりに—

趙智英（同志社大学）

### <要旨>

本発表では、日韓の説話・伝承における塩吹臼、打出の小槌、ファスブン（斗수분）などと語られる呪宝譚、文献説話『古本説話集』の呪宝獲得靈験譚を取り上げ、尽きることのない無限の呪宝というモチーフをもつ呪宝譚の諸相と人間の欲望、獲得のための資格などとの関係について考察した。無限の呪宝獲得靈験譚という特質をもつ『古本説話集』収載話は、呪宝譚において物語の面白さを際立て欲望の表れに対する警告性を強調する対立と模倣行為が描かれず、呪宝獲得までの過程に重点を置き、獲得後は詳細に描かれない。さらに偶然獲得した呪宝と求める者に与えられた呪宝という点で塩吹臼、ファスブンなどと相違があるが、日韓に伝わる無限の呪宝というモチーフを用いた物語は、共通して、道理をわきまえ、正しい判断ができる者こそ永久的な幸福を手に入れる資格が得られるということを示唆している。

キーワード 呪宝譚、無限、ファスブン、昔話、古本説話集

### 1. はじめに

日本と韓国における説話・伝承の中には、塩吹臼、打出の小槌、ファスブンなどと語られる呪宝譚がある。これらは、不思議な力をもつ何かによる、無尽蔵な資源、尽きることのない無限の呪宝という共通のモチーフをもつ。本発表では、研究の系譜を手掛かりに無限の呪宝譚の諸相を確認する。さらに、これらと類似するモチーフをもつ文献説話『古本説話集』の呪宝獲得靈験譚を取り上げ、無限の呪宝と人間の欲望、獲得のための資格などとの関係について考える。

## 2. 尽きることのない呪宝

人間が求める何かは繰り返し出てくる、または尽きることなく存在し、いくらでも手に入る得体の知れない呪物・呪宝は、韓国ではファスブン(斗寸盆)と呼ばれ各地域で語られてきた。ファスブンの定義としては、善行したある人物が米や金などなんでも入れるだけで増え続けるファスブンを得て、長者になるという幸運譚の性格をもつ説話<sup>1</sup>とされる。日本ではファスブンのようにそのモチーフを一言で表すことはないが、塩吹臼、打出の小槌、宝瓢箪と呼ばれる民話がある。これらの梗概及び補足は発表当日の配布資料に掲載する。稲田・小澤(1977-1998)による日本昔話の類型分類では、塩吹臼や打出の小槌にまつわる昔話・民話は各地域で最も多く採録されている。塩吹臼は次のようなプロットである。貧しい弟と長者の兄がいた。弟は望めばなんでも生み出す石臼を手に入れ、一夜にして長者となる。それを見た欲張りな兄は石臼を盗んで船に乗せて海に出て、塩を出すのが止める方法が分からず、船いっぱい溢れて沈むまで止まらず、兄は溺れ死んでしまう。海底へ沈んだ石臼は今でも塩を吹き出し続けているという。そのため、海水が塩辛いのだという起源説話としての性格をもつ。もとは北欧の伝承であり、柳田(1983)が「海の水はなぜ鹹い」という題目で岩手県の民話として採録している。打出の小槌は、願い事を唱えて振ると願いどおりの物が出てくる小槌である。『宝物集』、『御伽草

---

<sup>1</sup> 国立民俗博物館「韓国民俗大百科事典」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023> (最終閲覧日 8月18日)

韓国におけるファスブンの由来は諸説あり、任哲宰(1989)の全集に、語り手が「ファスブンというのはワスブン、蛙がくれた蛙授盆(ワスブン)といていたのがファスブンになった」と語る伝承が採録されている。一方、李勳鍾(1969)は「昔中国の始皇帝が万里の長城を構築するとき、土を練るためにはたいへん多くの水を使わなければいけないのだが、いちいち汲んで使う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高い峰の上に銅で大きな水がめを一つ作って置いた。そして兵士十万人を動員し、日々黄河水を汲んでその水がめに溜めるようにさせた。そして、各工事場で使う水はその水がめから引っ張って使うようにすると、兵士達が汲んで溜めておく水なので、使っても使っても干からびて無くなる日がないのはもちろんである。そうして、黄河水を汲んで溜める水がめ(盆)といい、河水盆(ハスブン)といていたことから転じた」と述べている。金福順(2016)は、中国で聚宝盆(金銀財宝をいくら取ってもなくなる伝説上の鉢)と呼ばれる類話が伝わることや、元末明初の富豪・沈万三の致富譚からファスブンという言葉が中国から由来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可能性を提示している。

子』などにも福を招き入れる呪宝として描かれている。朴蓮淑（2013）の韓国民話・伝承の類型分類により、塩吹臼、打出の小槌は韓国にも「宝物の臼-海水が塩辛い理由型（보물 맷돌-바닷물이 짠 이유형）」、「トッケビの棍棒（도깨비 방망이）」という類話群が存在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塩吹臼のように、兄弟や隣人が対立し、後で呪宝の存在を知った人物が模倣する（朴蓮淑 2013、金福順 2016）というプロットは日韓の無限の呪宝譚に多い。模倣は呪宝譚に限らず興夫伝、瘤取り爺などを代表とした昔話・民話に見られる。模倣譚は模倣による対立と繰り返しによって展開されるプロットの一つであり、模倣対象と模倣者の間に善と悪、知恵と愚昧、誠実と不誠実、無欲と貪欲など、対立と繰り返しの状況が展開され、ここに山神霊・鬼など補助者の介入により模倣者が失敗したり、罰を受けたりすることで結末がつく。模倣譚は受容者に教訓を与え、現実からの開放感を感じさせる一方、自分が置かれた社会の現実批判に繋げるなどの機能と意味を持つ<sup>2</sup>。変異型においても対立する者の模倣が見られる打出の小槌について、朴蓮淑（2013：310）は「呪宝の神異な機能的興味より敵対者の模倣行為及び言語的遊戯を楽しむ笑話性が強い」と評価する。呪宝譚における「対立的構造（金福順 2016：40）」と模倣行為は物語の面白さを際立て、欲望の表れに対する警告性を強調する。

### 3. 欲望と呪宝獲得のための資格

尽きることのない無限の呪宝譚は「小さな品物から無限の産物が出てくるというのは、その飛躍的拡張性という劇的要素により、大きな叙事的興味と意味をもたせる（申東昕 2014：2）」ことから様々な変異型を生み出し、特定の地域に限らず分布された。さらに、無限の呪宝は口承説話に限らず文献説話においても描かれる。ここでは、無限の呪宝モチーフが効果的に用いられた事例を見てみたい。平安末期、或いは鎌倉初期頃に編まれたとされる『古本説話集』は、世俗説話や靈験譚など約70編を収めた説話集である。『古本説話集』下巻第66話「自=賀茂社-給=御幣紙米等減程用途-僧事」は、貧しい僧が長櫃の中の米と御幣の紙<sup>3</sup>がなくなる無限の呪宝を獲得する。以下は『古本説話集』下巻第66話の梗概である。なお、『古本説話集』の本文及び補足は発表当日の配布資料に掲載する。

<sup>2</sup> 国立民俗博物館「韓国民俗大百科事典」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048>（最終閲覧日 8月18日）

<sup>3</sup> 神仏に祈願するときに捧げたり神道の祭祀で用いられる供物用の和紙。幣帛用の紙。

貧しい僧が鞍馬寺から清水寺、賀茂神社へと各々百日ずつ、三百日間参詣し、夢に「御幣紙と散米の米程度の物を授ける」と告げられる。僧は「せっかくあちこちにお参りしたのにその程度なんて」と落ち込み、もとの山の坊舎に帰ると、長櫃を背負った人が現れ、その長櫃をもらう。長櫃を開けると、白い米と質のよい紙が長櫃いっぱいに入れてあった。僧は夢告げの通りだと知ったが、米と紙しか貰えなかったと情けなく思った。仕方ないので米と紙をあれこれと使ってみると、いくら使っても尽きることがなかった。その後、僧はそれなりに裕福に暮したという。やはり神仏にはお参りすべきである。

『醒睡笑』、『賀茂注進雑記』に靈驗譚として同様の逸話が収められている。本話は一度きりのご利益ではなく、尽きない、永久的な褒奨という点で無限の呪宝譚の一種と言えよう。

『古本説話集』下巻第68話「小松僧都事」は下巻第66話と同じプロットを共有する。鞍馬寺で祈願し日を重ねていくうちに無念さを感じていると、夢告げによりいくらでも思えば叶うようになる。

小松の僧都という人がまだ小法師であったとき、比叡山延暦寺から鞍馬寺へ参籠し、三千日参籠し続けた。二千日経っても、三千日経っても夢による啓示を見ないので辛くなり、その夜は念仏を唱えて勤行せず寝た。すると夢で何かを授かり、目が覚めて手を見ると本当に両手に白い米が手のひらいっぱいに入っていた。その後は何かを食べたいと思うといつの間にか即座に手に入った。人手が欲しいと思えば自然と手助けが現れ、衣でもなんでも着たいと思うとただ思うままに叶ったので裕福に暮らした。あの白い米はまだ納めてあると伝わる。そのまま小松僧正として絵解にまでなり裕福な人となった。

李仁卿（2008）による『韓国口碑文学大系』の類型分類のうち、「地形由来」類型番号513-7「米が出る穴を台無しにする」型には「下位分類番号 513-7-(9) 寺を建てて懸命に修道生活をしている僧侶がいた。寺には僧侶が食べるくらいの米が出た。ある日不浄説法をした僧侶がその寺に入ると、米がこれ以上出なくなった」という類型が下位分類されている。李仁卿（2008）の類型分類を踏まえ調査したところ、『韓国口碑文学大系』には生活の手立てになる米や金などが絶えず出てくるというモチーフをもつ伝承が32編収められており（趙智英 2020）、僧と呪宝獲得という一定のプロットを共有する伝承が韓国各地に分布されているようである。また、崔仁鶴（1977）の『朝鮮伝説集』には、忠清南道扶余郡に伝わる岩から米が絶えず出てきて米岩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由来譚や、忠清南道公州郡儀堂面、咸鏡南道定平郡定平面、江原道鉄原郡邑内に分布する岩の穴から米や水が出てくる民話が収載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人間に高貴な財貨を持続的に供給する主体（申東昕 2014：22）」からは米が出てくるのが多く見受けられる。物語が語られた時代において、生活困窮者が直ちに腹を満たすことができ、繁栄の象徴とされてきたことが関

係しているのであろう。

さらに『古本説話集』下巻第59話「清水寺御帳給女事」には無限の幸福を得る呪宝獲得が描かれる。貧しい女が清水寺へ熱心に参詣し、泣いてご利益があることを祈願すると、御帳<sup>4</sup>の布地を授かる。女はあれほどお願いしたのにと、観音に御帳を返そうとする。しかし再び御帳を貰っては泣いて返し、そうやって3度も押し返すが最後は諦めて御帳を持って帰ってきた。貧しい女は着るものもなかったので授かった御帳を着物にして着た。その着物を着ると人々に愛され、たくさん物を貰い、立派な夫とも出会い裕福に暮した。それで女はその着物をしまっておいて、大事な時に取り出して着ると必ず上手くいくのであった。

院政期の仏教説話集『今昔物語集』にも同話が見える。馬淵他（2000）はこの御帳は「如意宝珠や打出の小槌と同類の、いっさいの願いがかなう万能の霊力を持った宝衣」と説いている。『古本説話集』収載話3編は神仏による効験が現れた靈験譚と読まれているが、無限の呪宝獲得靈験譚という特質をもつ。上述した塩吹白、ファスブンなどに多い対立構造や模倣行為は描かれぬが、呪宝を獲得するまでの過程や、人間と神仏のやり取りは笑話としての叙述様相を呈する。下巻第68話は小松の僧都は比叡山の延昌の弟子となり西塔具足房に住んだ平安時代中期の僧・実因のこと（中村・小内 1990：509）とされ、貧しいという記述はない。しかし他2編において共通しているのは、呪宝を得る者が生活困窮者であり、世俗的な願望をもち、授かった呪宝に対する不満を表出するという点である。いかにも人間らしく、現世的で世俗的な欲望が垣間見えるが、欲望は憧れと紙一重で、理想とする幸福を強く思い描き、絶えず祈願し続ける根気強さとして評価されたのであろう。

また、塩吹白、ファスブンなどは、偶然獲得した呪宝と、求める者に与えられた呪宝という相違がある。塩吹白やファスブンは、呪宝を獲得する過程において、人間が呪宝を見つけるにせよ、呪宝が目の前に現れるにせよ偶然性が強い。呪宝を与えた超越的な存在からすれば必然的な事柄だとしても当事者にとっては唐突で神異的な現象をどのように受け入れ、運用していくか判断を迫られることとなる。だからこそ、獲得後の呪宝の扱いや、超越的な力が定めた規範を破るほどの欲望を抑える努力と心得が肝心になる。「貧しい人が宝物を獲得するのはそれなりの資質をもっている（朴蓮淑 2013：319）」、「ファスブンには持ち主（임자）がいる（申東昕 2014：22）」という見解に基づいて考えるならば、『古本説話集』に描かれる僧と女は自ら呪宝の持ち主になる資格を得たと言えよう。無限の呪宝というモチーフを用いた物語は共通して、道理

---

4 帷（とぼり）の敬称。帳は室内に張り垂らして区切りや隔てとするもの。帷は裏のない一枚だけの絹布（中村・小内 1990：484）。

をわきまえ、正しい判断ができる者こそ永久的な幸福を手に入れる資格が得られるということを示唆しているのであろう。

#### 4. まとめにかえて

日韓の尽きることのない無限の呪宝というモチーフをもつ口承説話や文献説話について概観し、人間の欲望や呪宝を獲得するための資格との関係について考えてみた。『古本説話集』下巻第59話、第66話、第68話は現世利益を基盤とした欲望が達せられる説話である。その結果が一度きりの褒奨ではなく、着るたびに幸福を呼ぶ御帳や底をつかない米と御幣紙という点から無限の呪宝獲得靈験譚という特質をもつ。『古本説話集』における呪宝獲得靈験譚は、不思議な力をもつ道具の入手、禁忌、喪失（金福順 2016）が語られる口承説話と異なり、呪宝獲得までの過程に重点を置き、獲得後は詳細に描かれないという点、偶然獲得した呪宝と求める者に与えられた呪宝という点で塩吹白、ファスブンなどと相違があるが、幸運をつかむためには度を越すような欲望をもってはならない、すなわち道理を外れないという意識は、日韓に伝わる無限の呪宝譚と共通している。今回は塩吹白、ファスブンなどの民話と『古本説話集』を一例として取り上げたが、口承説話、文献説話ともに呪宝譚は極めて多く、さらに検討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る。今後も考察を深め、包括的な理解を目指したい。

#### <参考文献>

- 稲田浩二・小澤俊夫（1977-1998）『日本昔話通観』同朋舎  
崔仁鶴（1977）『朝鮮伝説集』日本放送出版協会  
趙智英（2021）『『宇治拾遺物語』夢説話の研究』金壽堂出版  
中村義雄・小内一明（1990）『新日本古典文学大系 古本説話集』42、岩波書店  
柳田國男（1983）『日本の昔話』新潮社  
김복순（2016）「화수분설화의 구조적 특징과 의미 고찰」『語文論集』66, 중앙어  
문학회, pp. 35-59.  
박연숙（2013）「화수분설화의 한일 비교」『일본어문학』61, 일본어문학회,  
pp. 299-332.  
신동훈（2014）「설화 속 화수분 화소의 생태론적 고찰-한국과 유럽 설화를 대상으로」『口碑文學研究』39, 한국구비문학회, pp. 1-28.

이인경 (2008)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이훈종 (1969) 『韓國의 傳來笑話』 동아일보사  
임석재 (1989)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4, 평민사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main>  
(最終閲覧日8月18日)

【付記】本稿は拙著『『宇治拾遺物語』夢説話の研究』の一部を発展させたものである。

# 教師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に対する 学習者の反応について

崔銀景（長崎外国語大学）

## <要旨>

本発表は、教師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の繰り返しの繰り返しに絞って、学習者が教師の繰り返し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に対してどのように反応するかを考察した内容である。本研究における繰り返し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は、学習者のエラーを反復するという言語形式だけでなく、同様の意味を持つ発話の反復まで対象を広げている。学習者の母語でも繰り返しが可能かについて、教師と学習者の会話データを基に分析を行った結果、繰り返しの使用言語により、学習者にエラーを気づかせる役割に違いが見出された。目標言語を使用した繰り返しの繰り返しは、発話のどの部分にエラーがあるかを特定させる役割があり、母語を使用した繰り返しの繰り返しはさらに学習者の発話が相手にきちんと伝わっているかを調べる確認のチェック（confirmation check）の役割をも果た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訂正フィードバック、繰り返し、繰り返しの使用言語、  
学習者の反応

## 1. はじめに

Swain(1985)によると、学習者のアウトプットは学習者の気づきを引き起こし、仮説検証をさせる役割がある。ここでの気づきは学習者自身の発話における正誤判断を始め、学習者の伝えたいことを目標言語できちんと意思伝達できるかどうかに関する気づきも含まれる。つまり、目標言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るかどうかは、目標言語を産出して見ないと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仮説検証というのは、学習者が目標言語を習得する過程において、目標言語運用に関して建てた仮説を検証することである。「この語彙を使用しているか」、「この文法の活用は正しいか」などと学習者が仮説を検証する過程で、その仮説が正しくなかった場合に教師や同僚学習者がエラーの発生を知

らせ、正しい目標言語の形を示す訂正フィードバックが与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

## 2. 先行研究

繰り返しは前述した訂正フィードバックの一種であり、学習者にとって正しい目標言語の形を提供しないという暗示的 (implicit) かつ間接的 (indirect) 特徴を持っている。他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に比べると教室内の使用頻度はさほど多くなく、繰り返しのみに絞った研究も少ない。訂正フィードバックの中ではリキャストの使用が多く観察されており、繰り返しは訂正フィードバックの一例として紹介されることが多い。(김은호, 2016; 니보리유카, 2013 など)

Lyster & Ranta (1997:48) は訂正フィードバックをインプット提供 (input-providing) 型とアウトプット誘導 (output-prompting) 型の 2 つに分けている。入力提供型の代表的な訂正フィードバックには、学習者のエラーに対して正しい目標言語の形を提供するリキャストなどがある。他方、産出誘導型の代表的な訂正フィードバックには学習者のエラーの手前までを繰り返し、続きを学習者に言わせる誘導などがある。繰り返しも教師が学習者のエラーを強調しながら、学習者の表現をそのまま繰り返す (名部井, 2015:45) 方法で、学習者にエラーの発生を気づかせつつ目標言語の再産出を誘導するため、アウトプット誘導型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

繰り返しにおける強調は英語を目標言語とする学習者を対象とした研究の場合、大文字やはてな記号などで表れることが多い。

学習者: I will showed you.

教師: I will SHOWED you.

Ellis (2009 : 9)

韓国語学習者を対象とした研究においても、以下のようにはてな記号を使用している例が確認できる。

学習者 : 수학을 공부하는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教師 : 수학을 공부하는 필요가 없어요?

이정희 (2019 : 188)

このように繰り返しは、学習者のエラーをそのまま反復することで、学習

者にエラーを気づかせる訂正フィードバックである。多くの先行研究では、学習者のエラーに対する教師の繰り返しが目標言語になっている。しかし、学習者のエラーと繰り返しは必ず同言語で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か。この繰り返しを目標言語ではなく、学習者の母語で与えることは不可能だろうか。

無論、母語による繰り返しは学習者の表現をそのまま繰り返すというわけではないため、厳密にいうと研究者によっては繰り返しとして分類されない可能性がある。これまでの先行研究において、学習者の母語を使用した繰り返しや訂正フィードバックの先行研究は非常に少ない。本発表では訂正フィードバック以外で、学習者の母語について述べた先行研究を挙げることにする。

신성철 (2009) は、韓国とアメリカにおける韓国語学習者と教師を対象に学習者の母語使用について認識調査を行った。その結果、教師は学習者の母語を使用することに大変否定的な立場であった。教師は、学習者のレベルが高くなるにつれて母語の使用を制限し、最終的には目標言語のみの授業をすべきだと思っていた。他方、学習者は母語使用に肯定的な立場であり、レベルが高くなっても母語は多く使用されるべきだと考えていた。최권진 (2007) はこのように教師が学習者の母語を教室内から排除し、目標言語のみを優先することが多く観察されている状況を批判しており、学習者の母語が学習者にとって目標言語の理解を助ける手段になり得ることを提案している。

조윤경 (2017) は、中国語母語話者の韓国語授業を対象に、目標言語のみで行われる授業と母語と目標言語の両方が使用される授業において、学習者の発話量に違いがあるかについて分析した。その結果、目標言語のみ使用された授業に比べ、学習者の母語が使用された授業の方が、学習者の発話量が有意に多か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その理由として、授業内容の説明時に母語を使うことにより、教師の説明時間が短くなる分、学習者の発話が増えた点と、学習者の母語を使用することで学習者の緊張が和らぎ、教室内の会話に参加しやすくなった (Macaro, 2005) 点などが記されている。

### 3. 繰り返しに対する学習者の反応

母語による繰り返しは、厳密にいうと学習者の発話を「そのまま」繰り返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繰り返しとしてみなすことに議論の余地があると思われる。本発表では、繰り返しにおける「そのまま」を言語形式だけでなく、意味をも含めた上で、母語による繰り返しと目標言語による繰り返しを比較していくことを明記する。

### 例 1<sup>1</sup>

- 1 S 음, 나무 정원에서는..  
<うん, 木の庭園では..>
- 2 T 나무 정원? 木の庭園? ➡ TL 繰り返し+L1 繰り返し  
<木の庭園?>
- 3 S 남정원..  
<南庭園> ➡ 訂正未完了・自力訂正
- 4 T 아, 남정원.. 남쪽 정원? ➡ TL 리キャスト  
<あ, 南庭園.. 南側庭園>
- 5 S 남쪽 정원에서는 ➡ 訂正完了・リピート  
<南側庭園では>

(崔, 2020 : 128)

上記の例 1 では 1 行目の「나무 정원」という学習者の発話に対し、2 行目で教師が「나무 정원?」と目標言語で繰り返しを与えつつ、母語で「木の庭園?」とも繰り返しを提示している。2 行目で目標言語と母語の両言語で繰り返しが行われたため、学習者が 3 行目で自力訂正を開始したのが、どの繰り返しによるものかは定かでない。しかし、教師の繰り返しにより、学習者にとって自分自身の発話意図が教師に伝わっていないという気づきはあったと思われる。それが、より適切な語彙を探し、自己訂正をしている 3 行目の発話で確認できよう。しかしながら、3 行目で産出した語彙の使用が適切ではなかったため、4 行目で教師が目標言語を用いてリキャストしている。学習者はこのリキャストを受け、最終的に 5 行目において、リピートをすることで自己訂正を完了している。

### 例 2

- 1 S 남자는 여자에게 커피 마셨어요? 라고 했어요  
<男の人は女の人にコーヒー飲みましたか?と言いました>
- 2 T 남자는 여자에게 커피飲みましたか 라고 한 거예요?  
<男の人は女の人に と言ったんですが?>  
➡ TL 繰り返し+L1 繰り返し
- 3 S 아, 맛있어요? 라고 했어요 ➡ 訂正完了・自力訂正  
<あ, おいしいですか?と言いました>

(崔, 2020 : 85-86)

<sup>1</sup> 以下、例文において S は学習者、T は教師を意味する。また、TL は目標言語、L1 は母語を意味する。



かを確認させ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が見出された。この役割により、学習者にとってエラーの種類や発生個所が認知しやすくなると推定される。繰り返しの使用言語による役割の違いについて、以下の表1を参照されたい。

表1. 繰り返しの使用言語による役割比較

母語が用いられた場合	目標言語が用いられた場合
エラー発生を位置を語単位で確認させる + 教師にどう伝わっているかの意味をチェックさせる	エラー発生を位置を語単位で確認させる

## 5. おわりに

繰り返しを含む訂正フィードバックに対する学習者の自己訂正有無をもって、習得の有無は判断し難いということを明記したい。なぜなら、学習者が習得済みかどうかを議論するには訂正フィードバックが長期記憶にも影響を及ぼすかに関する研究が必要だからである。

繰り返しについては前述した通り、まだ先行研究が多くない。さらに日本語母語話者を対象とした訂正フィードバックと学習者の反応に関する研究は非常に少ない状況にある。本発表は繰り返しのみに限定して学習者の反応を調べることで、繰り返しに関しても他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と同様、様々な研究が可能であることを提案し、今後の研究における話題提供をも兼ねている。今後、繰り返しを含む訂正フィードバックと学習者の反応の研究、日本語母語話者の韓国語学習を対象とした研究がより活発なることを願いたい。

## <参考文献>

- 崔銀景 (2016) 「教師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は目標言語のみで行われるべきか」『韓国文化研究』6, pp. 41-54.
- 崔銀景 (2020) 『教師の訂正フィードバック使用言語による学習者の反応についてー日本語母語話者の韓国語学習を中心にー』関西学院大学大学院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文化研究科博士論文
- 名部井敏代・森博英・田中真理・原田三千代・大関浩美編著 (2015) 『フィード

- バック研究への招待 - 第二言語習得とフィードバック』 くろしお出版
- 김은호 (201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실에서의 형태 초점」 한국문화  
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pp. 301-316
- 니보리 유카 (2013) 『일본 내 한국어 교실에서의 구어오류수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신성철 (2009) 「언어 교실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제 1 언어와 제 2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 연구 -한국어 교사 및 학습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 157-186.
- 이정희 (2019) 『한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어 습득의 이해』 도서출판 하우.
- 조윤경 (2017) 「교사의 학습자 모어 사용에 따른 교사-학습자 발화 비율  
분석」 『언어학연구』 44, 한국중원언어학회 pp. 203-218
- 최권진 (2008) 「학습자 모국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모색」  
『한국어교육』 1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299-319.
- Ellis, R. (2009). Corrective feedback and teacher development. *L2  
Journal*, 1, 3-18.
- Long, M. H. (1996). 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W. C. Ritchie, & T. K.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413-468.
- Lyster, R., & Ranta, L. (1997). Corrective feedback and learner  
uptake: Negotiation of form in communicative classroom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1), 37-66.
- Macaro, E. (2005). Codeswitching in the L2 Classroom: A  
Communication and Learning Strategy. In: Llorca, E., Ed., *Non-  
Native Language Teachers: Perceptions, Challenges, and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s*, Springer, USA, 63-84.
- Swain, M.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 Newbury House, 235-253.

# 朝鮮時代に 쓰여진 『老乞大』 諺解類에 관한 考察

## — 『老乞大』 諺解類의 慣用表現을 中心으로 —

金美順 (關西大学大学院外国語教育学研究科博士課程)

### <要旨>

本研究は朝鮮時代に書かれた『老乞大』諺解類の文献に現れた慣用表現の文章的特徴を研究することが目的である。朝鮮時代の初級中国語の会話書として最も權威があつた『老乞大』には 107 のストーリーにおよそ 18 の慣用表現の用例が書かれていた。その慣用表現に現れた特徴は、慣用表現の始まりの部分に、原文では「常言道」で書かれた例が諺解文では、表記法が文章の中でそれぞれ異なっており、また、通時的にも異なった表記法で書かれ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そして原文で書かれた慣用表現が諺解文では書かれてない例もあり、原文自体が時代によって少しずつ変わって書かれていたことが窺えた。また、朝鮮語の慣用表現ではあまり現れないような文章の形式的特徴として対句の技法が本研究対象に多く使われていた。

키워드 노걸대,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 관용 표현, 속담

##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노걸대』 언해류의 문헌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어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세와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한 관용 표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회화서였던 문헌이 있었다. 『노걸대』와 『박통사』이다. 그 양서를 살펴보면 초급 교재의 『노걸대』에는 107의 스토리에 관용 표현이 18가지가 쓰였었고, 중급 교재의 『박통사』에는 106의 스토리에 무려 70가지 이상의 관용 표현이 쓰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노걸대』의 원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성과를 밝힌 양오진(2010)은 원문이 중국어이기 때문에, 그 원문에 쓰여진 관용적 표현을 ‘숙어’로 정의하고 연구 분석하였다. ‘숙어’란 언어 중에 고정된 단어 결합이나 문장 형태로서 사용할 때 임의로 그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성어·諺語·격언·관용어·혈후어<sup>1</sup>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중국 학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sup>2</sup>

그러나 중국의 『漢語』를 중심으로 원문과 언해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박재연·최정혜(2011)는 그 『漢語』의 문헌에 나타난 관용적 표현을 숙어로 보지 않고, ‘속담’으로 정의하였는데, 속담으로 보기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덜한 직접적인 표현도 있고, 연어처럼 동사구인 표현도 있다고 했다. 다만, 박재연·최정혜(2011)는 속담으로 정의한 각각을 모두 전형적인 한국의 속담 형식에 비견하여 진정한 속담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따지기보다는 한국의 속담 개념과 중국어의 속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어의 속담은 諺語·혈후어·관용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다소 광의의 개념이라고 했다.

속담과 관용 표현에 관하여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순수 한국 문헌이 아닌 중국어의 원문을 토대로 한 언해문이기 때문에 그 언해문에 쓰여진 관용적 표현을 한마디로 속담이나 숙어 등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 『노걸대』의 원문을 조선시대의 훈민정음인 언해문으로 언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해문 안에 관용적 표현으로 쓰여진 표현을 통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넓은 의미로 보아 ‘관용 표현’으로 통칭하고, 『노걸대』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통사적 내용 중에서 특징적으로 분석되어진 용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 3. 『노걸대』 언해류의 해제

---

<sup>1</sup> 歇后語·歇后語혈후어: 박재연·최정혜(2011)에는 혈후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숙어의 일종으로 대부분이 해학적이고 형상적인 어구로 되어 있음. 원칙상 앞 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수수께끼 문제처럼 비유하고 뒷부분은 수수께끼 답안처럼 그 비유를 설명함. 보통 뒷부분은 드러내지 않고 앞부분만으로 뜻을 나타내는데 앞뒤 부분 모두를 병렬할 수도 있음. 수사법의 하나로서 문예작품이나 일상생활에서 성어(成語)와 마찬가지로 많이 쓰임” (중한사전, 200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박재연·최정혜(2011)재인용.

<sup>2</sup> 양오진(2010)에서 『辭海』(1997:246)의 재인용.

송기중(1995)에 의하면 『노걸대』는 조선전기에 한자로만 기술하여 간행한 중국어 학습서로서 1권 1책으로, 『노걸대』라는 서명이 『세종실록』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그는 『노걸대』의 첫 글자 ‘노(老)’의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해석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노형(老兄)·노사(老師)·노관인(老官人) 등과 같은 중국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경칭접두어(敬稱接頭語)로 이해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즉, 노걸대의 의미는 국어로 ‘중국(인)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노걸대』와 쌍벽을 이루었던 한학서 『박통사(朴通事)』가 중국인이 박 씨(朴氏) 성을 가졌던 조선 통사를 부르는 호칭이었다면, 노걸대는 조선 통사가 성명을 모르는 중국인을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추측하였다.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에 관하여 박태권(1995)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번역노걸대』는 조선전기의 학자 최세진이 『노걸대』를 언해하여 종종 연간에 간행한 중국어 학습서이며, 서명이 『노걸대』라고만 되어 있으나, 원본인 『노걸대』와 1670년의 『노걸대언해』와 구별하여 『번역노걸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노걸대』는 상인의 여행과 교역에 관한 회화집이므로 이 책은 독특한 대화체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후대의 『노걸대언해』와의 비교에 의하여 국어의 변천을 연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 『노걸대언해』는 조선 현종 때 정상국이 이 책의 앞서 간행된 『번역노걸대』를 참고하여 언해한 것이라고 했다. 『번역노걸대』는 16세기 초에 나왔고, 『노걸대언해』는 17세기 후반에 나왔으므로, 어휘와 문법 등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그 표기에 반영된 변화는 국어사의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했다.

#### 4. 『노걸대』 언해류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통사적 고찰

본 연구의 관용 표현이라고 판단한 선별 기준은 선행 연구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중국어 『노걸대』의 원문을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인 언해문으로 번역한 언해문을 중심으로 쓰여진 107개의 문단에서 관용 표현이라고 판단한 문장을 선별하였다. 특히, 관용 표현이 시작되는 부분에 「常言에 닐오되」로 쓰였으며, 종결 부분이 「ㅎ니」、「ㅎ니라」등으로 끝나는 문장을 주목하여 선별하였다. 그 결과 『노걸대』에서 선별된 관용 표현의 용례는 18가지의 용례가 선별되었다. 그 중에 4가지의 용례가 「상넛 말소매 닐오되」「常言에 닐오되」「常言에 닐오되」「상언에 니르되」로 각기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같은 통사 안에서도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는 시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걸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관용 표현의 용례만을 다음에 제시한다.

1) <원문> 常言道：馬不得夜草不肥，人不得橫財不富。 9b

a- 상넛 말소매 날오디 마리 밤 풀 몰 머그면 솔지디 아니하고 사름이  
반 천 곳 橫財 몰 어드면 가슴며디 몰흐느니라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人不得橫財不富。’ (翻譯老乞大上 32a~32b)

b- 常言에 날오되 말이 밤 여물을 었디 못흐면 솔지디 못하고 사름이  
반 財物을 었디 못흐면 가음여디 못한다 흐느니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老乞大諺解上 29a)

<현대어> 속담에 이르기를 말은 밤 여물을 먹지 못하면 살이 찌지  
아니하고 사람은 딴 재물(횡재)을 얻지 못하면 부유해지지 못한다  
하였다<sup>3</sup>

위의 1)의 용례를 살펴보면 「상넛 말소매 날오디」「常言에 날오디」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常言道」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박재연·최정혜(2011)는 철학적이거나 이치와 관련된 심오한 의미는 갖지 않으면서 굳은 형식으로 쓰이는 관용구, 앞뒤 부분으로 나뉘어 수수께끼처럼 앞부분으로 뒷부분을 추측하게 하는 혈후어, 특별히 비유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으면서 일상적으로 잘 어울려서 쓰는 상용구(연어 구성)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어로 표현되는 관용구, 혈후어, 상용구를 모두 포괄할 만한 한국어의 표현 단위가 정확하게 없으므로 그 형식과 의미면에서 근접한다고 볼 수 있는 ‘속담’으로 아울러 칭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번역노걸대』에는 쓰여 졌던 관용 표현이 『노걸대언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용례가 있었다. 그 예를 다음에 제시한다.

2) <원문> 休道黃金貴，安樂最直錢。21a

a- 황금이 귀하다 니르디 말라 편안호미사 빈소미 하니라 休道黃金貴，  
安樂直錢多。(翻譯老乞大下 4a)

<현대어> 황금이 귀하다 하지 말라, 편안함이 가장 값지다 하였다

위 예문 2)의 a 의 예문은 『번역노걸대』의 예문이다. 그러나 그 용례 자체가

<sup>3</sup> 이하 현대어로 번역한 부분은 양오진(2010)을 인용하였다.

『노걸대언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노걸대』의 원문에서 표기되었던 “最直錢”이 “直錢多”로 한어의 표기가 『번역노걸대』에서는 다르게 쓰였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위 예문 2)의 통사적인 특징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구의 기법으로 쓰여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는 전달하고자 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위 예문은 ‘니르디 말라’의 선행절의 서술어가 후행절 ‘빈소미 하니라’의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적 형식으로 상반되게 표현되어 대구를 이루고 있어 대조적 대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 조건적 대구 표현이 쓰인 용례이다.

3) <원문>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12b

a- 쏘 아니 니르느녀 천 리엿 나그네를 도히 보와 보내여 만 리에 일후를

옴골 디니라 却不說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 (翻譯老乞大上 44a)

b- 쏘 아니 니르느냐千里엿 나그네를 도히 보와 보내미 萬리에 일후를

던코져 흠이라 卻不說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老乞大諺解上

39b-40a)

<현대어> 천리 가는 나그네를 잘 살펴 보내면 만리에 이름을 전하게 되리라

위 예문 3)을 살펴보면,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어미가 ‘보내여’, ‘보내미’로 쓰였다. 그 뜻을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으)면’으로 번역이 되어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적 대구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문 1)의 a,b에서는 선행절 ‘몰 머그면 술지디 아니하고’와 후행절 ‘몰 어드면 가수며디 몰흐느니라’로 쓰여 대등적 대구 표현으로 이어지면서 각 절 안에서는 조건적으로 연결된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에서 통사적으로 ‘못’ 부정과 ‘지 못하다’의 부정문이 단형과 장형 부정문으로서 각각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대등적 대구 표현이 쓰여진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 <원문>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12a

a- 일즘 외방의 나든니기 니그면 일편도이 나그네를 애엿비 너기고 나  
웃 수울 탐흐면 취흔 사르물 앓기느니라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杯惜醉人。(翻譯老乞大上 42a)

b- 일즘 외방의 나든니기 니그면 일편되이 나그네를 애엿비 너기고 나

곳 술을 탐하면 취한 사람을 앓기느니라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老乞大諺解上 37b)

<현대어> 나들이에 익숙한 사람이 나그네를 편애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취한 사람을 아낀다

위 예문 4)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이 언해문에서 연결어미 ‘-고’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쓰인 대등적 대구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 5. 나가며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쓰여진 『노걸대』 언해류의 문헌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간결하게 생략하여 정리한 내용들을 연구대회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남광우 (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박재연·최정혜 (2011) 「조선후기 중국어 회화서<漢語>의 속담에 대하여」 『어문 논집』 66 호.

양오진 (2010) 「老乞大·朴通事に 보이는 熟語의 표현에 대하여」 中國學論叢第 30 輯.

<인용 원문과 언해 문헌>

『노걸대』 (미상 고려 말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번역노걸대』 (1510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노걸대언해』 (1670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인터넷>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korean.go.kr

박태권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2634>

송기중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2634>





# 日本韓国研究 2021年度第1回研究大会予稿集

---

発行日 2021年8月20日

発行 日本韓国研究会

〒599-8531

大阪府堺市中区学園町1番1号

大阪府立大学 高等教育推進機構

電話 072-254-9655

メール(事務局) [jak.jimu\(at\)gmail.com](mailto:jak.jimu@gmail.com) \*(at)は@に変更してお送りください。

ホームページ <http://jak.main.jp/> (入会手続きはこちら)

編集 崔銀景 趙智英

---

日本韓国研究会   
Japan Association of Koreanology